

[기획] >> 3면
동아리 연합회

[기획] >> 4면
총학생회 공약 이행률

[심층] >> 7면
우리학교 학식

[사회] >> 8면
그루밍 성폭력

제52대 총학생회 푸름의 공약, 이행 정도는?

지난 5일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 공고가 총학생회(이하 총학) 페이스북에 게시됐다. 총학 푸름의 임기는 다음 총학 선거 성사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한 달 남은 12월이다. 학생사회에 부는 변화의 바람이라는 기조와 함께 출범한 총학은 선거 당시 다양한 공약으로 주목을 받았다. 총학의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사진 조유진 기자 yujin@hufs.ac.kr

박진 우리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리더상' 수상

이번 달 9일, 박진 우리학교 석좌교수·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겸 한미협회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금마호텔에서 진행된 브랜드로리어트어워드(The BrandLaureate Best Brands Awards)에서 글로벌 리더상을 수상했다. 글로벌 리더상은 비영리기관인 '아시아태평양브랜드재단(이하 APBF)'에서 해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APBF는 박진 교수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과 통합△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주주의△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쳤기에 이 상을 수여했다고 전했다.



▲박진 석좌교수(가운데) 수상 사진

기쁘지만 그 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려하나마 앞으로도 우리나라 글로벌 브랜드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 교수가 이뉴스투데이와 한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어렵고 미중무역 전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세계로 눈을 돌려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국익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며 "중국과 일본은 동남아에서 상호 경쟁과 협력 속에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뜻밖에 상을 받게 돼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우리학교 관세사 시험 수석합격 및 5명 합격자 배출

지난 9월 제35회 관세사 시험에서 우리학교가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번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총 91명으로 우리학교 학생 △유현일(서양어·스칸어 05)△이규현(아시아·베트남어 06)△홍재현(상경·국통 07)△조선웅(아시아·터키어 11)△박찬빈(서양어·스페인어 11) 씨가 합격했다.

수석 합격생인 이규현씨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며 "주 단위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지키려고 노력했다"며 "다수의 모의고사를 통해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버틴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후배들에게 조언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해 관세사 시험 최종합격자는 총 2차례의 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1차 시험은 관세법개론과 무역 영어를, 2차 시험에선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 과목을 실시한다. 시험 실시 과목(△관세법△관세율표 및 상품학△관세평가△무역실무)은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자로 선발된다. 이번 해 제2차 시험엔 총 1,374명이 응시했다.

한편, 관세사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에 관세사 등록 및 관세사무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2019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9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18.9.27.(목) ~ 10.8.(월)	2018.11.12.(월) ~ 11.23.(금)
고사장 발표	10.10.(수) 15:00	11.28.(수) 15:00
면접전형	10.13.(토) 10:00 예정	12.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24.(수) 14:00	12.12.(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10.29.(월) ~ 11.2.(금)	12.17.(월) ~ 12.21.(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 문화,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5) 학력조회동의서 부(원본)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가능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국어),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교수회관 104호)

영어대 학생회장 탄핵소추안 발의

지난 15일 △이민정 EIOO학과 학생회장△최주혁 EILT학과 학생회장△윤하경 EILT학과 비상대책위원장△손희영 영미영문학문화학과 학생회장 이 우리학교 제33대 영어대학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영어대학 학생회장(이하 영대장)이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고 심지어 녹음도 되고 있는 공식적인 MT자리에서 두 번씩이나 영어대학 단톡방 성희롱 혐의자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다른 학생이 혐의를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영대장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대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학년이 낮은 1·2학년이 다수 참여한 MT 자리에서 다른 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했던 인물을 다시 학생사회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의도 때문이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과 15일 우리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에서도 영대장의 폭력적인 행동이 언급됐다. 12일 대나무숲에는 단과대 리더십 트레이닝(이하 LT)에서 영대장이 술자

리에서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당시 술자리의 술게임에는 같은 과 사람이 틀리면 틀린 사람이 속한 해당과의 모든 사람들이 벌칙을 받게 되는 ‘과 연좌제’가 적용됐다고 한다. 그런데 한 학생이 연속해서 여러 번 틀리자 영대장은 그 학생의 이름과 함께 심한 욕설을 뱉었다. 이러한 영대장의 행동에 학생들은 학생회장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이런 언행을 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대나무숲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LT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학생들은 서로 방을 바꾸기로 했었다. 하지만 술자리 진행이 늦어지자 영대장은 단과대 새내기 배움터 주체(이하 단대새주)에게 “너 이렇게 하려고 단대새주했냐”라고 비방했다.

그리고 개강 이후 영대장은 “단대장 선거에 나갈 테니 선거 본부장을 해달라”고 일방적 통보를 했고 실수를 할 때마다 그를 비난했다. 또한 영대장은 친하다는 것을 빌미로 단대새주의 빈바지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

도 했다. 이 당사자 외에도 술자리에서 학생의 다리를 허락 없이 베고 눕는 등 지위를 무기삼아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서슴없이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단대장이라는 지위에 있어 많은 학생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 불쾌감 표시해도 장난으로 넘기는 경우가 다수였다. 학생들은 부당함을 제기하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학생회장이 권력을 휘두르고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고 폭력에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것과 더불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모습에 학생대표들은 영대장의 권한 중지 및 파면을 요구했다. 현재 영어대학(영어대)학생회장 권한대행은 손희영 영미문학문화학과 학생회장이 이행중이며 영어대학 학생회장 다른 파해시례를 접수받고 있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권력형 성폭행 근절 성명문 게시

학생 참여 없는 징계위원회, 누구를 위한 징계위원회인가

-권력형 성폭력 가해 교수 장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성명문-

2018 년을 떠올려볼 때 만들어진 MeToo 운동은, 문화·예술계와 정치·언론계뿐만 아니라 한국외대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지난 2018 년 3 월 5 일 K 교수, 3 월 19 일 S 교수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이 폭로되며, 그런 고질적인 관행이라 욕인해왔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그리고 학교 본부는 S · K 교수에 대하여 각각 해임과 징계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도 받았으니 사건이 마무리 되는 듯 보이기 쉽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 61 조 제 11 항 1 호에 따르면 징계의 경우 징계기간에도 교원신분이 유지되며 3 개월 후에는 즉시 복직이 가능하다. 또한 해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복직을 수월이 가능하며, 교수직을 잃지만 3 년 후 교원 재임용이 될 수 있다. 즉 S · K 교수 모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국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들을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지의 부재를 방증한다.

학교본부는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인 S 교수와 K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수라는 직위는 해당 학과 내에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행의 경우 우월한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은 성적 자율권의 침해에서 그치지 않고 학술윤의 침해, 나아가 노동시장 진출에 있어서 차별로 연결되기에 특수성을 지닌다. 더불어 이러한 권리 침해가 비단 피해자뿐 아니라 그 공동체 성원들에게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단순히 성적인 언동의 경멸만으로 가히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본부는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즉각 반영하라

S · K 교수에 대한 징계결과는 ‘권력형 성폭력’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송달방이 징계이며 표면적인 조치라고 여겨진다. 또한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서 당사자성이 성립되는 학교 전체 구성원들은 학내 조사 및 징계 처리에 있어서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교원과 교직원만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시스템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의 징계 처리 과정을 신뢰하고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한국외대 공동체 성원들이 인정할 수 없는 해임과 징계이라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체를 외치는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학교 본부의 만일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외대 국제학부는 학교본부가 도입시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대할 것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진정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가해자를 단죄하고 공분하는 데에 그치면 어떠한 윤리도 타격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권력형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에 권력형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규탄하고, 학교 본부 자원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 본부는 각자에게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가해자 보호를 양주교, S 교수와 K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

2018.10.9

한국외국어대학교 제 14 대 국제학부 학생회

▲각급 단위의 성명서 중 일부

지난 6월 27일에 개최된 우리학교 이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가해지목 교수의 징계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이에 정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 국자장회의에서 행동방향을 논의했고 그 결과 7월 5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푸름’ (이하 총학)은 우리학교 총장과 이사장에게 사실 확인 및 공유를 위한 공문을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9

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체학생총회에서 진행한 성명서가 채택됐다. 성명문에는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사실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본부는 징계위원회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라고 주장하며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성명문에는 △“학교 본부는 권력형 성폭행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해야 한다” △“학교 본부는 징계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징계위원회 징계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총학은 지난달 11일 총장과의 면담에서 학생참여 징계위원회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학교는 징계위원회 개편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학생참여 징계위원회에 대해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총학은 설면서 채택과 관련해 “학교 본부는 학내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의 고백에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해야 한다”며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불평등한 권력구조가 타파돼야만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학은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우리학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우리학교 이클래스 서버 다운

지난 3일 우리학교 인터넷 사이트 이클래스(E-class)의 서버가 다운됐다. 학교 측에서 운영하는 이클래스는 교수와 학생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학습을 위해 개설됐다. 교수들은 이클래스를 통해 강의 자료나 공지사항 등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거나 온라인으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클래스에는 열런게시판이라는 기능이 있어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 내용에 대해 교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정 과목에서는 이클래스를 통해 인터넷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이클래스 사이트가 다운돼 학생들이 하루 동안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겪었다. 장준석(통번역·영어 17) 씨는 “이클래스 페이지를 열었는데 사이트는 열리지 않았다”며 “그날 과제 제출을 해야 했는데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지각 제출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과제 중 녹음 파일을 올릴 때도 올라가지 않아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보내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우리학교 이클래스를 연결해주는 사이트는 15년째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오래됐기 때문에 가끔 서비스 장애가 있을 때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3일 서비스 오류가 난 것 또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조치를 취했다”며 “서버가 오래돼 발생한 문제인 만큼 지난 13일에 서버를 새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진행 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정보통신팀은 “이번 일에 대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했으며 “학교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박병철 에베레스트 회장, 학교 발전기금 1억 기탁



▲박병철 에베레스트 회장 기탁 사진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박병철 회장(상경·국통 67)(이하 박회장)의 발전기금 기탁식이 개최됐다. 박회장은 “국내·외 외대인 네트워크가 없는 곳이 없다”며 “외대인이라 자랑스러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기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끌었다. 또한 LA 한인연합회 회장과 경제 세계화인무역협회 이사장을 맡는 등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했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www.korean.ac.kr

2018학년도 겨울학기(제43기)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KFL)

국내 유일의 언어권별(영, 중, 일) 맞춤 이론 수업 진행
실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실습 수업 실시
40년 전통의 한국어교육의 산실 한국외대 한국어교육과의 노하우 전수
한국어교육 권위자 허용 원장(Marquis Who's Who 등재) 직접 강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 제공
우수 수료자 대상 본 원 강사 채용 시 가산점 부여

2018학년도 겨울학기(제43기) 신입생 모집안내

※ 교육일정
2019년 1월 2일(수) ~ 1월 31일(목) 월~금 / 9:20 ~ 17:30 (총 130시간 과정)

※ 원서접수 및 지원자격
원서접수 : 2018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 12월 17일(월) 오후 4시
지원자격 : 고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 (단,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TOPIK 6급 소지자)
접수방법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상세 내용 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www.korean.ac.kr)

전 형 료 : 20,000원
등 록 금 : 1,415,000원(교재비 포함)

※ 문의처
한국어문화교육원 운영팀(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외국어연수평가원 101호)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02-2173-2260 / 이메일, cklace@hufs.ac.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국외대(KFL)로 이동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CENTER FOR KOREAN LANGUAGE & CUL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제36대 동아리 연합회 후보자 출마

지난 2년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던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서울캠) 동아리 연합회(이하 동연)에 새로운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제36대 동연 후보자 선거운동 본부 '휴스큐즈미(HUFSCUS ME)'의 이선범(서양어·포어 17) 정후보자와 최지현(사회·정외 14) 부후보자다. 이들은 이번 달 27일 선

거를 앞두고 14일부터 19일까지 5일의 선거운동을 치렀다. 이에 △후보자 소개 △출마 이유 △공약 등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동연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학보에서 직접 만나 들어봤다.

◆동아리 연합회란?

동연이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속 중양동아리 73개, 동아리 회원 2000명을 위한 학생 자치기구다. 중양 동아리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총학생회 다음으로 가장 큰 학생 자치기구라고도 할 수 있다. 동연에선 주로 △중양동아리 박람회·문화제·버스킹 등과 같은 행사를 주최하거나, △동아리방 사업·△교비 지원·△행정 지원 등과 관련해 학교 당국과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정학생회가 비대위 체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동연 비대위 체제는 동아리의 대표성과 학생자치활동에 제한이 있다. 대표로서 정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와의 교섭에서도 불리하고 책임감이나 비전이 결여돼있어 특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또한 청화생화라면 학기 초 큰 그림을 그리고 출발하는 반면, 비대위 체제는 대체로 현상 유지에만 치중한다.

◆후보자 소개와 출마 이유를 들어
보고자 한다.

이선범(서양아·포어 17) 정후보자 : 시대가 변화함에
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사회가 아직 1980년대에 머무
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때문에 학생 사회가 잘 굴러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난 2년간 우리 동연 역
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연의 비대위
체제를 깨고 뒤쳐진 우리 학생 사회를 요즘 트렌드에
맞게 끌어오려고 한다. 앞으로 동연이 학생 사회를 변
화시키고 우리학교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생자치 참여
를 이끄는 진정한 학생 자치기구로 거듭나게 하고자
정후보자 출마를 결심했다.

최치현(사회·정치 17) 부후보자 : 오랜 기간 동연 집행부에 근무했지만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던 동연에 한계를 느꼈다. 오랫동안 이를 타파하고 싶었다. 때마침 이산범 후보자를 만나 같이 학생 사회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동연을 활성화시키고자 부후보자로 출마하게 됐다.

◆공약에 대해

1. 동대문구 3개 대학(우리학교-경희대-시립대) 동아리 교류전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제까지 동연이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학생 사회에서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평가받아 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동대문구 3개 학교 동연 출마 후보들끼리 모여 이른바 ‘외경 시전’이란 대학 교류 행사를 만들기로 협의했다. 이에 교내 중앙동아리를 넘어 3개 대학 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대한 행사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동연 대부분의 사업이 공연본과에 치중돼 있다. 이를 시립대, 경희대와의 교류행사를 통해 다른 동아리들에게도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주고자 한다. 예컨대 체육 동아리 같은 경우 학교별 대항전을 통해 학생들의 결속력을 높이거나, 학술 동아리 같은 경우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학문적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교류 또는 대항을 통해 최대

후보자 약력

이선별

정학성회장 후보자

2017년

포르투갈어과 입학
제51대 총학생회 기획국장
포르투갈어과 1학년 과대표
제51대 서양어대 재능기부위원회 위원
서양어대 공작평가위원회 위원

2018년

2018 새터 중앙주제발: 중앙판 주제
제35대 동아리연합회 문화예술분과장
중앙학생회칙특별위원회 위원

최지현

부학성회장 후보자

2014년

정치외교학과 입학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집행부원

2015년

정치외교학과 새터 기획단

2016년

제33대 동아리연합회 기획국장

2017년

제34대 동아리연합회 인사사회분과장
제35대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제35대 동아리연합회 생활문화분과장
2018 동아리박람회 총 주재

핵심선거공약

외대, 경희대, 시립대 대항전

동대문구 주요 3개 대학 동아리 중심의 대항 교류전

자치공간 개선 사업

노후화된 전시실 리모델링 및 다목적 공간으로의 활용
신촌건물에 중앙동아리 자치공간 확보 요청

모든 중앙동아리 자치공간 24시간 개방

도서관 폐쇄의 대안 공간으로서 지하캠퍼스,
교수학습개발원의 24시간 개방 요구

교비 지원금 확충

동아리별 교비 쿠폰 재분배를 통한 실질적 재원 증가
학교 당국에 추정예산 편성 요구

동아리연합회 회칙의 합리적 전부 개정

현 회칙을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전부 개정

소통채널 활성화 및 업그레이드

한동안(한 달 동아리 소식안내) 재학생화
소통 채널 다각화 및 업그레이드

공약

73개 동아리 2000명의 학우가
함께 만들어가는 빈칸 공약



새로운 동연의 시작은 당신으로부터



▲동아리 연합회 36대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흙스큐즈미(HUFSCUS ME)' 후보자 약력과 핵심 선거 공약 포스터



정후보

이선범

포르투갈어1가

부후보

최지현

정치외교1가

HUFSCUS ME

투표 날짜 11월 27일
시간 9:30~18:30
장소 국제학사
1층로비

From.

제 36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후보 HUFSCUS ME

꼭꼭!

새로운 동연이
도왔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36대 후보자 선거운동본부 '흙스큐즈미(HUFSCUS ME)' 선거 포스터

한 많은 동아리의 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목표다.

이에 다음 해 2학기 세 학교가 동대문구 전체를 크게
흔들어보고자 한다. 학교와 학생은 물론 △동문회△
학내 언론△동대문구청△사회기 상인 연합회 등과도 협
의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우러질 수 있는 커다란 계
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교류의 장을 통해 행사의
다양성을 넓히고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큰 축
제를 만들 것이다.

2. 자치공간 개선 사업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국제학사 4층 452호 동아리연합회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서울캠에선 여기저기 빈 공간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이 방은 72개 동아리 중 단 2곳만 이 사용하고 있고, 한 학기에도 전시 기간이 2주가 채 안 된다. 그 외엔 종종 공연동아리들이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렇기에 리모델링을 통해 벽면 거울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확장하는 등 다목적 실로 바꾸기 위해 계획 중이다.

또한 우리학교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중앙동아리가 많은 학교에 속한다. 또 인준을 받는 동아리들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필시 자치공간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미래 학우들을 위해서 학교 측에 신축 공간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학교 측과 상의해서 최선의 자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동아리 연합회의 회칙을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동연 회칙엔 문제가 많다. 비효율적이고 구시대적이며 회칙 간에 상충되는 점도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비대위 체제에서 끊임없이 개선하려 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하지만 정학행회가 들어서면 다르다. 학칙 개정을 이끌어 나갈만한 역량이 생긴다. 따라서 동연 회칙을 전반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 바꾸려 한다. 아무래도 회칙은 학생자치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 회칙엔 인권과 횡령에 관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동아리 회원들의 인권침해 문제나 횡령 문제 관한 세칙을 꼼꼼히 개정하려 한다. 중앙동아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동연에서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회칙개정과 관련해 학생회칙 특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개정 중 다른 중앙동아리 회원의 생각을 포함하는 등 최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4. ‘한동안’이란 채널을 활성화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학교 중앙동아리들이 활동에 비해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한동안'이란 채널을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이다. '한동안'이란 '한 달 동아리 소식 안 내'의 줄임말로 동연 측 공식 홍보용 SNS 채널이다. 앞으로는 이를 활성화시켜 우리학교 동아리들의 다채로운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이다. 따라서 이는 동아리 활동 홍보를 위한 동연의 화력지원인 셈이다.

5. 빈칸공약이란?

빈칸공약은 동연이 언제나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약이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약을 내놓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많은 동아리들의 문제를 한 번에 파악하기 힘들다. 그래서 '빈칸공약'은 다른 동아리들과 소통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너희·보단 '우리'에 초점을 맞춰 동아리 회원들의 요구를 빠르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통해 동연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언제나 열려있는 자치기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동아리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언제든지 귀담아들을 것이다.

◆후보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동연
은?

중앙동아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앙동아리들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되, 이들의 큰 울타리가 돼주는 것이다. 그 안에서 많은 동아리들이 각자 자유로운 활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앞서 강조한 '너희'가 아닌 '우리'의 동연이 되고자 하는 것도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함께 이끌어 나가는 동연을 만들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싶다. 그리고 학생 사회를 변화시켜 지금보다 더 발전된 학생 자치사회를 이룩하고 싶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 36대 동연 학생회 선거캠프 '휴스큐즈미(HUFSCUS ME)'가 앞장서고자 한다.

제52대 총학생회 푸름의 공약, 이행 정도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52대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은 지난 5월 3년 만에 총학 선거가 성사되며 ‘푸름’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출범했다. 이번 해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총학의 임기 역시 마무리 단계에 서 있다. 선거 당시 총학이 제

시했던 공약들의 이행을 검토해 보고, 학생들은 총학의 공약 이행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총학의 주요 공약

총학은 선거 당시 △정책△인권△소통△자치△문화 총 다섯 분야의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공약은 아래와 같다.

정책분야	△학사제도협의회 신설△성적확인 및 강의평가제도 개선△재수강 제한 철폐(9학기 이상) 및 어학강의 절대평가 전환△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제도 신설△예비군 공결인정 공문 발송△고시반 운영 체계화△교양강의 개선△해외교류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개선△코어사업 사후 대책 마련△인기 이중전공·부전공 강의 확보
인권분야	△인권침해사건대응세척 및 반성폭력 내규 신설△성폭력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학칙 개선△성평등센터·학생상담센터 지원 확대 및 모니터링△인권보장사업△학내 소수자 권리 보호정책△생리공결제 전산화
소통분야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설△소통채널 확대△오프라인 게시판 숫자 확대△총학생회 홈페이지 청원제도
자치분야	△민주적 총장선출제도를 위한 협의체 마련△도서관 리모델링 촉구 및 대안 공간 마련△이사회에 법정전임금 인상 요구△학내 시설 이용료 전면 무료화△등록금심의위원회 체계적 대응△학교 주차장 학생 할인△자치공간에 대한 공간권 확보
문화분야	△가고싶은, 변화를 만드는 학생총회△축제 콘텐츠 강화△월별 행사 기획△해외봉사 재개△온라인 담론 공간 ‘생각나눔터’ 개설

대부분의 공약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돼 있던 학생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선거 당시 공약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안중현(서양어·독일어 16) 총학생회장은 “3년 동안의 비대위 체제는 지금까지 학생들의 권리를 위한 공약이 없었다는 것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쌓여있다는 의미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또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은 학생들과의 약속이며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홍보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선거 당시 학내 문제들을 의제화하는 데 집중했던 이유를 밝혔다.

◆총학 공약, 어느 정도 이행됐나?

총학의 공약 이행 현황은 지난 상반기 정기학생총회(이하 정총)와 하반기 정총 자료집과 총학 홈페이지(<http://hufsstud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분야에서 총학은 학사제도협의회를 신설하였고, 강의평가제도 개선이 이행 완료 단계에 있도록 하였다. 학사제도협의회는 △학생△교수△교직원 학사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상설 회의체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성적평가방식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다. 지난달부터 학사제도협의회에는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단△중앙집행위원장△담당 국서의장△양 캠퍼스 교무처장△학생인재개발처장△학사종합지원센터장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 총학은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를 협의 중이고 다음 해 상반기부터 완화된 조건으로 시행 예정이다. 총학에 따르면 학사제도협의회 첫 회의가 진행됐으며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회의·논의 내용과 회의 체계를 정립했다. 이번 학기 종강 전까지 두 번의 회의가 예정돼 있고 주로 성적 평가방식과 재수강 학점 제한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학기부터 변경된 성적 평가 방식과 완화된 재수강 학점을 시행하기로 상당 부분 합의돼 있다.

이외에도 총학은 교무처와의 면담을 통해 △군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도 신설△인기 이중전공·부전공 강의 확보△교양강의 개선 등의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군 복무 원격강좌와 관련 △학칙 검토△타 학교 사례△수요 조사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우리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인기 강의 확보는 경영대학을 중심으로 대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필수 교양강의 수 부족으로 수강을 못 하거나 미취지는 문제 역시 지난 6월 교무처 면담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문제 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인권분야에서 총학은 △인권보장사업△학내 소수자 권리 보호 정책△생리공결제 전산화를 이행했다. 총학은 지난 6월 서울시 여성 안심 보안관과 동대문구 경찰서와 함께 서울캠퍼스 내 모든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또 인권의제 홍보채널 구축의 일환으로 총학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격주에 한 번씩 인권 의제 관련 카드뉴스를 업로드 중에 있다. 학내 소수자 권리 보호 정책과 관련해 상반기 정총 때 논의된 엘리베이터 설치에는 이행 단계 중이다. 총학에 따르면 현재 도서관 공사 시작 시기에 맞춰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사회과학관△교수학습개발원 중 한 건물에 우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생리공결제 전산화는 지난 7월에 시행 공고가 올라왔으나 학생들의 반발을 사사과문을 게시하고 결과적으로 시행이 유보됐다.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6대 요구안은 지난 상반기 정총 안건으로서 결의됐으나 재정 부족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안들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중현 총학생회장은 “성폭력 요구안은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내용을 다듬는 작업에 있다”며 “이번 해 겨울방학 즈음에 추가로 이행되는 공약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자치분야에서 총학은 △학생참여 총장선출제도 마련△도서관 리모델링 촉구 및 대안공간 마련△자치공간 공간권 확보를 이행했다. 학생참여 총장선출제도는 현재 교수에게만 선출권이 있는 시스템을 △학생△교직원△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총학은 교수협의회와 교직원 노동조합을 방문해 총장선출제도를 논의 중이고 총장선출제도 테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꾸렸다. 이 과정을 통해 3년 후에 예정된 총장선출을 위해 학생참여 총장선출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총학은 지난달 스마트도서관 기공식이 열린

후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부족한 면학 공간을 확보했다. 현재 국제학사 기숙사 식당과 사회과학관 3층을 개방해 열람실을 확보한 상태고 추가 개방할 곳을 물색하는 과정에 있다. 또 자치공간 안전규약을 작성해 주무 부처에 발송, 성명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내에 자치공간을 24시간 개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학은 홍보소통과 문화기획 분야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총학은 기존 비대위가 페이스북에 의존했던 홍보 방식을 분산시키기 위해 총학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해 △공지사항△회의록△공약이행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총학 홈페이지에는 푸른 소나무숲과 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학생들과의 더욱 활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문화기획 공약은 주로 축제 관련 내용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축제 전에 정총을 기획해 정총 역시 축제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이번 해 △권쿠아트리아 네이밍△각종 축제 해시태그 이벤트△프리마켓 부스△포토존 등으로 학생들이 축제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총학은 신이문 치안 문제를 질의했고 6월 24일에는 러시아 월드컵 단체관람을 잔디광장에서 진행하고 성황리에 마쳐 월별 행사 기획을 이행했다.

총학의 공약 이행에 대해 이해윤(사회·정외 18) 씨는 “공약은 대체로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돼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공약을 비롯한 인권 관련 공약 이행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황경민(중국·중언문 17) 씨는 “△축제 홍보 영상△SNS(Social Network Service)홍보△포토존△피크닉존 등 다양한 축제 콘텐츠로 전반적으로 학우들이 축제다운 축제를 즐길 수 있었”고, “권쿠아트리아라는 우리학교만의 축제 이름과 기조를 갖게 돼 좋았다”라며 높은 축제 만족도를 표했다. 덧붙여 “우리학교가 소규모에 평지인데도 여전히 장에 학우들의 이동권과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것이 아쉽다”며 조속한 엘리베이터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의 총학 행보에 대한 주목과 기대

지난 5일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 공고가 총학 페이스북에 게시됐고 이번 달 15일에 후보 등록이 마감된다. 총학 푸름의 임기는 다음 총학생회 선거 성사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한 달 남은 12월까지이다. 만약 이번 선거 때 후보자가 나오지 않거나 선거가 무효 처리되면 총학 푸름의 임기가 다음 해 4월까지 연장되고 총학 재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 푸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이행 중인 공약들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안중현 총학생회장은 “다음 총학이 이어서 푸름이 추진했던 공약들을 할지의 여부는 다음 총학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이행 중인 공약들이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라고 판단하면 다음 총학이 이어서 이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96yuj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외국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회화과정, 방학특별과정, FLEX 어학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18년도 하반기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8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06. - 12.21.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1.16. - 01.31.
야간과정	20주 야간과정	2월, 8월	08.06. - 12.21.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10.15. - 12.21.
주말과정	10주 주말과정	2월, 8월	08.25. - 11.03.
	FLEX 대비과정	3월, 9월	11월 중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3월, 9월	09.01. - 12.15.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fltc.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소개

교육특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란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원어인(한국외대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숙사 시설 이용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주중 및 야간과정	02-2173-2515	flttc@hufs.ac.kr
주말과정	02-2173-2525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02-2173-2524	edulife@hufs.ac.kr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15, 351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FOREIGN LANGUAGE TRAINING & TESTING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특수외국어교육 관련 법과 이와 연계된 우리학교 프로그램

우리학교는 45개의 전문화된 외국어교육을 바탕으로 △인문△상경△사회△법△이·공학을 아우르는 글로벌 융·복합 대학이다. 우리학교는 ‘어문학’과 ‘지역학’이라는 고유 가치를 심화하고 그에 기반한 융·복합 인재 양성의 사명을 다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학교의 지향점과 연계된 법을 제정하고 지원을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2016년 2월에 이 ‘특수외국어교육 진흥법’을 제정했고, 지난해부터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을 시행했다. 우리학교는 지난해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선정한 특수외국어교육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고, 이번 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법률이 우리학교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노 의원)은 ‘2017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및 제도 활성화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어교육은 영어에 치우쳐 있고 제2외국어라 해도 중국어나, 불어와 같은 선진국의 언어에만 집중돼 있다”며 특수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노 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제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자주 접하지 못한 국가들과도 외교를 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 사회에 맞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 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공적인 영역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양성해야하는 인적자원이다. 2016년 2월에 국회에선 ‘특수외국어교육 진흥법’을 제정했고, 지난해부터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을 시행했다. 이번 해엔 31억 8,000만 원이 이 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됐다.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언어를 말한다. 여기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아랍어 등(12개)△유라시아 지역의 카자흐어 등(7개)△인도·아세안 지역의 인디아어 등(14개)△유럽 지역의 폴란드어 등(18개)△중남미 지역의 브라질어 등(2개) 총 53개 언어가 포함된다. 53개의 언어 중 우리학교에는 11개의 언어와 15개의 학과가 개설돼있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이하 마인어과)△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이하 마인어통번역학과)△몽골어과△브라질학과△아프리카학부△중앙아시아학과△이란어과△인도어과△인도학과△태국어과△태국어통번역학과△터키어과△포르투갈어과△폴란드어과△헝가리어과가 그 15개 학과에 속한다.



▲우리학교 특수 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 체계도

◆우리학교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이승용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이하 이 원장)은 “우리학교가 1954년 개교했을 때부터 국내 유일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었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노하우와 우수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 같다”며 교육기관 선정 소감을 전했다. 이 원장은 다음 해부터는 우리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오픈강좌와 온라인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우리나라 특수외국어 관련 사업을 이끌어가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의 핵심 5대 사업은 △표준 교육과정 개발△표준 교육교재 개발△표준 평가인증체계 구축△CFL 사전개발△한국형 무크(K-MOOC) 개발이다. 첫 번째 사업인 ‘표준 교육과정 개발’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의 제공과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우리대학 내 ‘특수외국어 표준화 위원회’ 설립하고, 언어별 특수외국어 6단계(A1, A2, B1, B2, C1, C2) 표준교육과정 3차년도까지 개발함으로써 계획·추진 중이다.

두 번째 사업인 ‘표준 교육교재 개발’은 표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초 교재의 개발을 통해 특수외국어를 학습하는 전공 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세 번째 사업인 ‘표준 평가인증체계 구축’은 특수외국어 능력 평가에 있어, 현재 대학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

기타 비교과프로그램 및 전공연계실습	
마인어·마인어통번역학과	포트폴리오 제작 실습, 교육특강, 말하기 대회
몽골어과	방과 후 학교, 학술제
브라질학과	방과 후 스터디, 말하기 대회, 학술 경연대회
아프리카학부	방과 후 보충반
중앙아시아학과	신문 발산 프로그램, 스터디 및 회화반, 프리토킹 및 영상번역
이란어과	방과 후 보충강좌, 신문 만들기
인도어과·인도학과	전공연계 스터디, 동아리 운영, 외부인사 초청특강
태국어과·태국어통번역학과	동아리 운영, 전공연계 실습 프로그램, 경시대회, 문화예술제, 학술제 등
터키어과	방과 후 보충수업, 문화실습
포르투갈어과	동아리 활동,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폴란드어과	원어연극공연, 신문발간, 방과 후 보충반, 말하기경연대회, 외부인사 초청 특강, 학술대회 등
헝가리어과	헝가리 문학번역, 영상번역 프로그램, 말하기 경시대회, 학술제 등

는 평가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언어별로 수준의 차이 없이 한국인 학습자에 최적화된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는 CFLPT(Critical Foreign Languages Proficiency Test) 평가인증 시스템을 국가 공인화 하는 것으로 목표로 둔다. 또한 ‘CFL 사전개발’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단계별 필수어휘 사전을 어플리케이션(APP)으로 개발·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K-MOOC 개발’은 지난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6개 이상의 특수외국어 관련 우수 강의를 Language-MOOC로 개발 후 K-MOOC에 등재 및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통번역대학 학술제에서도 K-MOOC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학과 사업은 학과 공통 사업과 학과별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학과 공통사업은 특수외국어과에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공통사업에는 △특수목적사전 개발△신규 교과목 개발△전공교재 개발△교수법 개발이 있다. 또한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마다 상이하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방중집중이수△비교과△전공연계△탄뎀프로그램 등 각각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중집중이수과정 △태국어과·태국어통번역학과△중앙아시아학과△터키어과△브라질학과△폴란드어과△마인어통번역학과△헝가리어과가 진행한다. 방중집중이수과정이란 특수외국어 전공생 및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인 언어능력향상을 위해 방학 중에 1~2주간 학교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약 6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태국어과·태국어통번역학과를 비롯한 몇몇 학과는 이미 지난 1학기 종강 후 진행됐고, 마인어통번역학과를 비롯한 몇몇 학과가 이번 2학기 종강 후에 방중집중이수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탄뎀프로그램은 △마인어과△중앙아시아학과△인도어과·인도학과△태국어과·태국어통번역학과△터키어과△포르투갈어과 진행 중이다. 탄뎀프로그램이란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상호지도(peer tutoring)를 통해 언어·문화적 상호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소통과 협업 능력, 국제 감각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탄뎀 학습 참여 학생들에게 팀당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참여 학생들은 과업 수행 후 지도교수에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및 전공연계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K-MOOC: 한국형 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지난 1학기 종강 후부터 일주일 간 하계 방중집중이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현지(통번역·태국어 18) 씨는 “학기 중에 배워보지 못한 것을 심화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하계 방중집중이수 프로그램을 호평했다. 또 박지혜(통번역·태국어 18) 씨는 “특히 학교에서 숙식을 다 제공해주셔서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우석(국제지역·인도 18) 씨는 “학기 중엔 시험을 위한 문법, 단어 관련 공부였지만 방중 수업은 회화에 집중해 학기에 배울 수 없던 내용을 원어민 교수님께 배워 재밌었다”고 방중집중이수 프로그램에 대해 전했다.

반면 안타까움을 드러낸 학생도 있었다. 신수민(통번역·태국어 18) 씨는 “태국어 통번역학과는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학생이 만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방향적 수업이 진행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같은 특수어를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활동형 수업을 하며 소통할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유진(국제지역·아프리카 17) 씨는 “하루에 6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은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며 “또한 교내 셔틀도 없는 방학에 교문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인 어문관에서 수업이 진행돼 힘들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탄뎀프로그램과 관련해 이윤지(통번역·태국어 18) 씨는 “태국인들과 직접 만나 회화나 작문을 피드백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탄뎀프로그램의 장점을 전했다.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사망을 통해 본 중동의 변화

김수완 교수
아랍어통번역학과

지난달 2일 결혼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던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혼란에 빠졌다. 자말 카슈끄지는 사우디 반정부 인사로 현재 미국에 자발적 망명상태로 체류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사우디에 대한 반정부적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며 사우디 왕실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Muhammad bin Salman)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사우디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실종이 계획적 살해로 밝혀지기까지 △터키△사우디△미국 3개국의 복잡한 관계를 통한 중동의 역학구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타국의 자국외교공관에서 사우디 언론인이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인권탄압적 측면에서 국제사회를 공분에 몰아넣었다. 더욱이 자말 카슈끄지는 자국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했고, 사우디 왕실과 현재 핵심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정책 및 행보에 강력한 반대와 비판의 입장을 견지해온 강경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죽음은 큰 이슈가 됐다.

터키는 사건발생 초반부터 사우디 왕실의 개입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입증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미 언론에 꾸준히 정보를 흘려왔다. 이에 이번 사건과의 연관설을 강력히 부인하던 사우디 왕실의 입장은 그의 죽음이 계획적 살해였음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책임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사건 관련자 18명을 체포했다. 국제사회와 미 의회가 이번 사건을 인권탄압이라 규정하며 강력대응을 요구하자 사우디와 동맹관계를 구축해 온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무기판매△원유△대테러대응△로비 등 뗄 수 없는 동맹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생산 무기의 약 10% 이상을 사우디로 수출하며 무기판매 수입의 30% 또한 사우디를 통해 얻는 등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무기수입국이다. 또한 1930년대 사우디에서 원유가 발견된 후 미국은 사우디와 에너지동맹국으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왔다.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대결구도에 있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사우디와 협력 및 공조의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중동연구소△정계△재계 등에 전 방위적인 로비를 통해서 사우디에 유리한 정책 및 여론형성수립을 위해 매년 수백만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가장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이자 중동의 맹주 자리를 넘보고 있는 터키는 최근 몇 가지 사안에서 사우디와 대립양상을 보여 오고 있다. 우선 무슬림형제단을 기반으로 하는 터키와는 달리 사우디는 무슬림형제단을 탄압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카타르 단교조치에서 터키는 사우디 반대편에서 카타르 지지를 공표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도 터키는 사우디와 입장을 달리하는 등 터키와 사우디는 같은 중동국가이며 이슬람 국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터키에서 구금됐다가 최근 석방된 미국 브런슨복사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던 미국과 터키의 관계는 쌍방 간에 보복관계 부과로 인해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고 더욱 악화되었다. △경상수지적자△대의부채비율△실업률상승△에르도안 터키대통령과 가족들의 부패이미지 등 총체적 난국에 접어들었던 터키는 이번 카슈끄지 사건으로 사우디와 미국을 압박하며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슈끄지 사망사건으로 사우디 왕실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직에 반대하는 등 사우디 왕실과의 갈등으로 영국에서 체류하고 있던 살만 국왕의 동생 아흐마드 빈 압둘 아지즈(Nayef bin Abdul-Aziz Al Saud)가 최근 사우디로 귀국했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동생 칼리드 빈 살만 워싱턴 주재 사우디 대사가 사우디로 귀국했다. 'Mr. Everything'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33세 젊은 왕세자의 행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당히 주춤할 것으로 예측된다. 왕세자를 교체하라는 미 상원의 요구에도 사우디 왕실은

왕세자를 당장 교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남녀가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영화관을 개장하는 등 '사우디 비전2030'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 탈피해 경제다변화를 추진하던 개혁 개방적인 젊은 미래 군주의 모습은 사우디 언론인 카슈끄지 사망으로 퇴색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배후설 및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의 사우디 왕실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큰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하다. 국제사회는 사우디 주도의 예멘 공습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지원을 받고 있던 다수의 미국 내 △연구소△싱크탱크△자문 기관 등이 사우디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와하비즘을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사우디를 개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한 품에 받았던 무함마드 왕세자의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카슈끄지 사건이 단기간에 사우디의 입지를 축소시켜 중동 내 역학관계의 눈에 띄는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시사한 바는 어떤 형태로든 중동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이 발생했을 때 많은 아랍인들이 중동 민주화에 대한 희망을 기대했다. 아랍의 봄이 아랍의 겨울이 됐다는 자조적인 말이 생길 정도로 기대는 실망으로 바꿨지만 분명 그 씨앗은 어디엔가 뿌려졌으며 깊은 땅속에서 씨앗을 틔우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사우디 언론인의 죽음이 그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언젠가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 작은 잎으로, 그리고 잎이 무성한 나무가 돼 자라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싱크탱크(Think tank)

마치 큰 수영장처럼 보이는 방(tank)에 들어간 생각을 한다는 의미로 두뇌집단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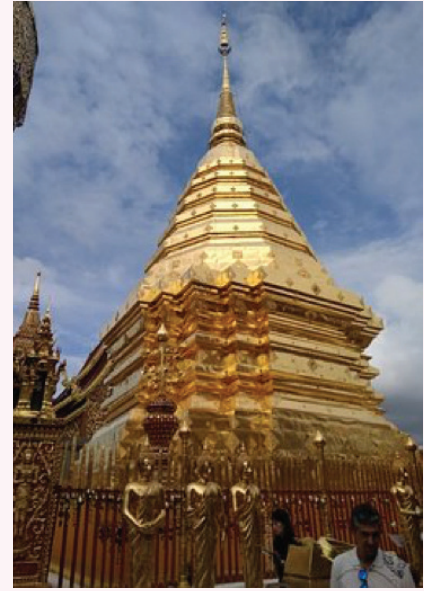
*와하비즘(Wahhabism)

18세기 중엽 아라비아반도에서 출현한 이슬람 복고주의 운동이자 사회·정치 운동으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이념의 기초이자, 근대 이슬람 부흥운동의 효시이다.

겨울 속의 온기를 찾아서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휴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있다. 매서운 추위와 힘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따뜻한 겨울 휴양지를 알아봤다.

먼저 소개할 휴양지는 태국의 치앙마이이다. 치앙마이는 치안도 좋고 인터넷도 잘 갖춰져 있어 전 세계 배낭여행객들에게 꿈의 여행지로 꼽힌다.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에 자리하고 있어 무더운 태국의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선선한 편이다. 또 미얀마,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주변국을 여행하기에도 좋다. 치앙마이에는 사원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왓프라탓 도이수텡(Wat Phra that Doi Suthep)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왓프라탓 도이수텡 사원

다. 이 사원은 경사가 높아 오르기가 힘들지만, 그 끝에는 금빛 사탑들과 치앙마이 도시 전경이 펼쳐지는 전망대가 있어 최고의 사진 명소로 꼽힌다. 치앙마이의 또 다른 관광지인 와로롯시장(Warorots Market)은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태국 고유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이곳에서는 각종 △현지 음식△향신료△차트△일상용품 등을 판매한다. 치앙마이에서 수공예품을 사고 싶다면 창클란 거리(Chang Khlan Road)에 있는 야시장인 나이트 바자에 가보는 것도 좋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살 수 있고 이색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접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 나이트 바자는 야시장인 만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제일 활발하게 운영된다.

베트남의 나트랑 역시 겨울에 찾기에 좋다. 나트랑은 베트남 중남부에 있으며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릴 만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많은 명소가 있지만 나트랑 대성당(Nha Trang Cathedral)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꼭 가야 할 장소로 꼽힌다. 나트랑 대성당은 프랑스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 건축 양식을 띠고 있다. 돌로만 지어져 '돌성당'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약 4,000개의 묘비를 볼 수 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롱선 사원(Long Son Pagoda)은 앞서 소개한 나트랑 대성당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같이 관광하면 좋다. 롱선 사원은 베트남 중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 사원이다. 또한 전형적인 베트남 건축 양식인 2층 팔작지붕으로 지어졌다. 1800년대 후반에 지어졌으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해 파괴돼 재건축한 유서가 깊은 사원이다. 사원에 들어가려면 몸을 가릴 수 있는 긴치마와 긴바지를 꼭 착용해야 하고 신발과 모자를 벗어야 한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기록으로 보는
외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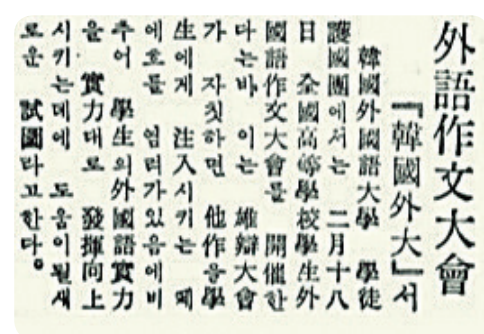
1950년대 11월 늦가을,
전국 고등학생 외국어 웅변대회가
개최되다.



▲제5회 전국 외국어 웅변대회(1958)



▲제6회 전국 외국어 웅변대회(1959)



▲외국어 작문대회 기사(출처-동아일보 1956.02.09)

우리학교 학생들은 글로벌 시대의 주역답게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익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개교 초기 학생들의 교내활동은 △각 나라별 원어 연극△외국어 백일장△모의UN총회△모의올림픽 등과 같이 우리학교의 특성을 살려 전개됐으며 이후 △동아리 연합회△개별 동아리△자치기구들이

중심이 되어 △심포지엄△외대 학술상△FBS가 요제프세계민속문화축전 등을 개최하는 등 점차 학술·문화 행사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다. 재학생들의 학내 자체 행사 이외에도 우리학교는 전시회와 공연 등의 포맷을 활용한 △해외 문화 공유 프로그램△외국어 시민 강좌△어학 교재 대여 등 우리학교가 축적한 교육 노하우와 역량을 개교 이래 지금까지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외국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행사를 개최하는 것인데 우리학교는 개교 첫 해인 1954년부터 전국 남·녀 고등학생 외국어 웅변대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외국어 웅변대회는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들을 격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학교가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임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아울러 외국어 및 외국 문화의 이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낮았던 당시에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데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이 행사는 당시 고등학생을 위한 행사 중 가장 성황을 이뤘다. 전국 남·녀 고등학생 외국어 웅변대회는 먼저 원고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학생들이 본선에 진출해 외국어 실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957년엔 전국 각지에서 이 웅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약 70명의 남·녀 고등학생들이 모여 들었다. 당시 심사위원도 △문교부 차관△미국과 영국 대사관의 참사관△아시아 문화 재단의 한국지부 대표△국내 영자 신문 편집장△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될 만큼 행사는 점차 전문성과 권위를 두루 갖춘 대회로 발전해 갔다.

또한 외부의 관심과 조언을 적극 수용하면서 점차 큰 대회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웅변대회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주입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1956년부터 외국어 작문대회를 함께 개최하기 시작했다. 1958년 10월 30일 우리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제2회 대회엔 전국 각지에서 온 고등학생들이 '한국의 장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어△프랑스어△중국어△독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100분 동안 작문 실력을 겨루기도 했다. 이 대회는 매년 늦가을에 개최됐는데 1970년 이후부터는 전국 고교생 수월 경연대회로 명칭을 바꿔 진행되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특징을 살린 외국어 웅변대회와 작문대회는 전국의 고등학생에게 외국어 학습의 방향과 실천 훈련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우리학교만의 전통은 '초·중·고 외국어 경시대회(우리학교 FLEX센터 주최)', '중·고등 영어토론대회(우리학교-YTN 공동 주최)' 등으로 발전해 현재까지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워 나가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에 동기부여가 되고 학구열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우리학교 학생 식당 현 상황은?

이번 달 12일부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서울캠) 교수회관의 식대가 인상됐다. 공고문에서 행정지원처장은 식재료와 제품원가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식대가 인상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식대 인상은 2016년에 학생 식당의 식대가 인상된 이후로 2년만이다. 2016년에 식대를 인상한 후에도 서울캠 교내 식당의 재정은 항상 적자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학생들에게 맛과 가격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

아왔다. 반면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교내 식당은 서울캠의 식대보다 약 1,000원 비싼 가격으로 구성돼 있지만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생 식당을 취재해 서울캠과 글캠의 학생 식당 운영 전반과 타 학교의 학생 식당 운영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캠퍼스 학생식당의 명과 암

현재 서울캠의 교내 식당은 △인문과학관 1층 식당△교수회관 식당 △스카이라운지로 총 세 곳이다. 서울캠 학생 식당은 저렴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학교 커뮤니티사이트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서울캠 학생 중 48.3%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학생 식당을 이용하며 82.8%가 인문과학관 학생 식당을 이용한다. 또한 약 75%의 학생(매우 만족 27.6% · 만족 48.3%)이 학교 밥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을 꼽았다. 또한 특색 있는 메뉴는 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KBS> TV프로그램 VJ특공대에서는 우리학교 학생 식당 메뉴 치즈돈가스를 소개한 바 있다. (2018.04.27일자 방영) 이설향 서울캠 인문과학관 학생식당 영양사는 학식 메뉴 구성 방식에 대해 “△학생의 선호도△식당 좌석의 회전율△외국인 학생들의 선호△조리실 사정△영양△단가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치즈 돈가스나 닭강정처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메뉴에 대해서는 “조리 과정에서 굉장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그 정성을 알고 사랑해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학생 식당도 적자의 늪에 서는 벗어날 수 못하고 있다. 외대알리에 따르면 2015년 학식 적자는 1억 4천만 원에 달했다. 2015년 이전부터 △외대 서립△기념품점△매점의 수익으로 학생 식당의 적자를 메우고 있으나 이는 역부족이었다. 후생과에서 불가피하게 식대 인상을 제안했고 2016년 총학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여러 번의 협상 과정을 거쳐 식대가 평균 260원이 인상됐다. 식대가 인상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식당 재정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문제는 식당 재정뿐이 아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에 ‘외관 ·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인문과학관 학생 식당은 오랫동안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아 △책상△의자△조리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또한 현재 식권 발권 · 수집 시스템은 종이 식권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각에서는 학식을 제공하는 시스템과 인테리어 모두 아직도 구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설향 영양사는 인문과학관 학생식당의 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자 문제는 꾸준히 있어 왔다”며 “식대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학식을 사랑해줘서 고맙다”며 “음식을 만드는 게 힘들지만 하루 4,000명의 학생들이 와서 매번 먹여주는 게 감사한 일”이라며 애정을 나타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식의 저렴한 가격 뒤에는 많은 사람의 정성과 희생이 가득 담기는 것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저렴한 학식 구성의 이

면에 대해 말했다. 이종순 서울캠 총괄지원팀 후생파트 과장은 학생 식당 적자 문제에 대해 “학교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의 가격 인상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학생 식당은 학생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식대를 인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외관 · 디자인 개선과 관련해 “현재 재정에서 새롭게 식당 인테리어를 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캠퍼스 학생식당도 적자로 어쩔 수 없어

현재 글캠의 교내식당은 △어문관 식당△후생관 식당△기숙사 식당으로 총 세 곳이 있다. 대부분 서울캠의 학생식당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과는 다르게 글캠의 학생 식당은 부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에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캠 학생 중 34.6%는 주 1~2회를, 30.8%는 주 7회 이상 학식을 먹는다. 학생의 73.1%가 학식을 먹으며 학교 밥에 대한 만족도로는 △23.1%가 만족△30.8%는 보통△약 45%가 밥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58.8%가 맛을 꼽았으며 불만족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가격 대비 맛의 부족△반찬의 영양소 불균형△음식의 질을 제시했다. 또한 설문조사의 한 응답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캠의 경우에는 글캠의 식당보다 싼 가격을 받으면서도 맛이나 품질이 더 좋다고 들었다”며 “양 캠퍼스 간 학식 가격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캠의 가장 비싼 학식은 2,500원인 반면, 글캠의 가장 비싼 학식은 약 3,500원 정도이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글캠 학식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김유빈(경상 · GBT 18)씨는 “학식 중에 뚝배기와 탕류가 특히 맛있다”며 학식에 대한 만족을 표했다. 이현정(동유럽 · 헝가리어 18) 씨 또한 “어문관 카페테리아의 음식이 식는 게 가끔 아쉽지만 대체로 학식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캠과 다르게 운영 · 유지되는 기숙사 식당에서도 학생들의 불만족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기숙사 식당은 학교 측의 직영이 아니라 삼성 계열사 웰스토리 기업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에타에는 기숙사식에 대해 “아침 메뉴가 너무 부실하다”며 “이 정도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글이 기숙사식 사진과 함께 게시됐다.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정혜원(경상 · GBT 17) 씨는 “기숙사식 카드를 쓰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며 “기숙사식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한 학식 가격 문제에 대해 김석중 글캠 총괄지원팀장은 “인력 · 행정상의 문제로 서울캠과는 다르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며 서울캠 학식과의 가격 차이에 대한 원인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식사의 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면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 학교의 학생 식당 운영 방식 대체로 비슷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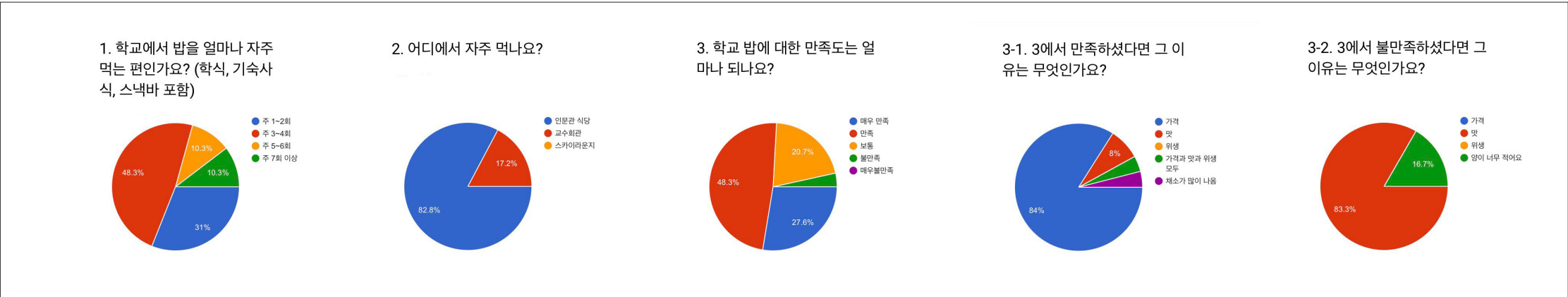
타 학교 학생 식당은 자체운영 · 기업 위탁 운영 방식이 혼용된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학식도 생활협동조합과 기업에서 운영된다. 기업에서 위탁하는 학생 식당의 식대는 3,000원에서 6,500원 정도이다. 서울대 재학 중인 김소현씨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식에 아주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학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했다.

중앙대학교의 학생 식당도 자체 운영하는 곳과 삼성 웰스토리가 운영하는 곳으로 구성돼 있다. 자체 운영하는 학생 식당의 식대는 2,600원에서 4,000원으로 구성되며, 기업에서 위탁하는 학생 식당의 식대도 약 3,000원에서 12,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된다. 중앙대 재학 중인 박은지씨는 “삼성 웰스토리 식당은 깔끔하고 가성비 좋다”며 “학생식당도 메뉴가 다양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안다”며 학식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더불어 학생식당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자체식당보다는 웰스토리 식당이 깔끔하지만 그 차이는 건물의 연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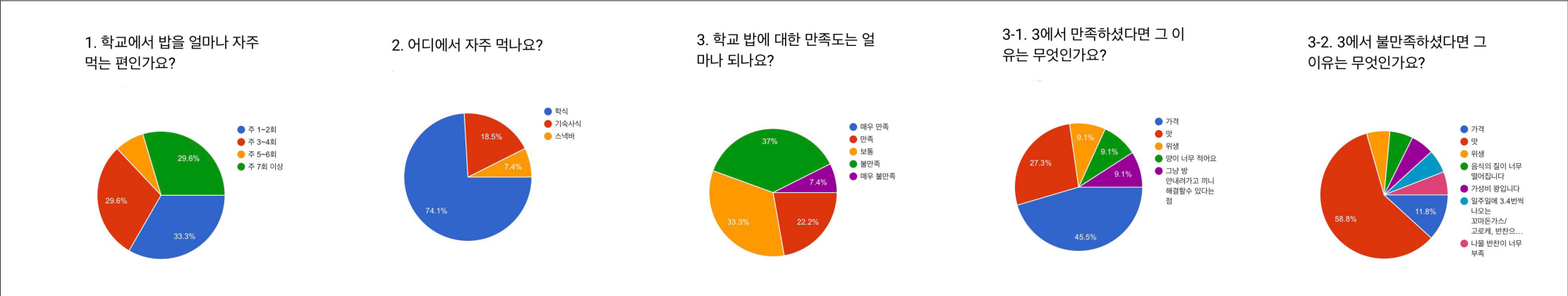
서강대학교 또한 운영방식이 자체운영과 기업위탁운영으로 나뉜다. 두 식당 모두 가격대도 비슷하게 2,900원에서 3,900원대로 구성됐다. 서강대 재학 중인 김예진씨는 서강대학교 학교 식당에 대해 “학식이 필수가 아니라 많이 먹진 않지만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고 밝혔다. 또한 학교 식당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식당 안이 깔끔해서 인테리어가 별로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서울캠의 학식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되지만 학생식당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글캠의 학생들은 영양이 갖춰진 보다 개선된 학식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 발전된 학생식당과 학생 복지를 위한 학교 차원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서울캠퍼스 교내 식당 만족도 조사



▲글로벌캠퍼스 교내 식당 만족도 조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루밍 성범죄

최근 일부 교회 집단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그루밍 성범죄’라고 불리며 연일 화제가 됐다. 성범죄 가해자는 대부분 해당 교회 목사로, 교회 집단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는 개인부터 수

십 명에 이르렀고 그 연령대는 10대 청소년부터 4~50대 주부까지 다양했다. 이와 같은 그루밍 성범죄의 의미는 무엇이고 사건의 전말과 이에 대한 처벌 및 대응은 어떤지 알아봤다.

◆ 그루밍 성폭력의 의미

‘그루밍 성폭력’이란 이름은 차림새나 털 등을 ‘손질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groom’에서 비롯됐으며 성적 길들이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해자와의 정신적 신뢰를 바탕으로 성적 학대 및 착취를 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거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공통 관심사로 오랜 기간 소통하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경계를 풀고 의존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점차 성적 가해 행동을 하며 피해자가 이를 범죄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세뇌한다.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깨닫고 벗어나려 해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며 피해자의 폭로를 막기도 한다. 그루밍 성범죄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는 자신이 학대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잠재적인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실질적인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 그루밍 성폭력 사례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인천의 한 교회 담임목사와 그 아들인 김 모 목사(이하 김 목사) 부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김 목사는 미성년자인 신도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담임목사 역시 이러한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후 해당 교회 성범죄 피해 신도들은 이번 달 6일 서울 종로구의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범죄 행각을 폭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신도는 김 목사를 자신이 오랫동안 존경한 스승이자 목사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문제를 바로 제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김 목사와 자신은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자인 자신을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피해 신도는 김 목사의 행동을 거부할 때마다 그가 사랑의 감정을 처음 느낀다고 말하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김 목사를 믿었다고 전했다. 더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 목사는 동시에 8명에서 10명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전체 신도 200여 명 중 피해자는 최소 26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피해 신도들은 △김 목사 부자의 사과△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김 목사 부자의 목사직 면직△교단 헌법에 성폭력 처벌 규정을 명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예수장로회는 이번 달 8일 그루밍 성범죄 논란이 있는 김 목사의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교회와 목사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피해 신도들에게 사과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에 피해 신도들 쪽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김 목사에게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으며 김 목사는 변호인을 선임해 향후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는 종교계뿐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만연하다.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 교사인 35살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경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며 “벗어봐라”라고 한 뒤 B양의 허리와 배를 만지며 추행했다. 이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까지 4차례 더 B양을 추행했고, 2014년 4월 12일에는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 것”이라며 회유했다. 범행 시점은 A씨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4년간 △집△학교△승용차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양을 13차례 지속해 성폭행했다. 심지어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에도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그에게 징역 9년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어린 학생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점을 질타하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친족 사이도 그루밍 성범죄를 피해갈 수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C양(19)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부모 역시 그를 정서적으로 방치해 C양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C양

은 외삼촌 D씨(40)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됐다. 이에 D씨는 C양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했고 강제 추행했다. C양은 외삼촌을 힘껏 밀치며 강력히 반항했으나 벗어날 수 없었다. 이후 D씨는 추행의 수위를 높여 C양을 성폭행했으며 이는 약 3년간 지속됐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눈치챈 C양의 부모가 D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은 끝이 났다. 그러나 재판부는 C양과 D씨가 선물을 주고받은 내역, 연인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의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해 6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외삼촌이 조카의 취약한 정신 상태를 이용해 호의를 베풀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례”라고 설명하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현숙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장 : 그루밍 성범죄를 규제하는 법으로는 유일하게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서 ‘성매수 유인행위’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기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처벌되는 사례 역시 발견하기 힘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루밍 성범죄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전자 기기를 압수 수색하거나 아이피 주소를 추적해 성매매 전력을 살피고 숨어있는 피해자를 찾는 등 적극적 수사 기법이 필요하다. 현재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 기준 연령 역시 13세 미만으로 지나치게 낮아 상향이 필요하다.

임수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구성 요건의 기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어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고 배우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취하기 위해 굳이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범죄가 더이상 자행되지 않도록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흡 소 사 이 어 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중앙광고동아리 애드라인은 현재까지 35기의 동아리 회원이 활동했다. 많은 기수를 배출한 동아리인 만큼 활동에 있어 많은 선배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매력만점 애드라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지난 학기에 34기 회장을 맡고 이번 학기부터 다시 평회원으로 활동하는 주수한(경영·경영 17)씨를 만났다.

기자 : 애드라인 동아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수한 : 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때 만난 선배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시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같이 앉은 선배가 애드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에게 애드라인을 추천해줬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애드라인을 시작했습니다.

기자 :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수한 : 평소에는 매주 세미나를 진행해 광고와 관련한 여러 정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로는 1학기에는 주로 홈커밍파티인 ‘딸기파티’와 메인행사인 마케팅 공모전을 따온 ‘경쟁PT’를 진행합니다. 2학기에는 정기 광고제를 기획해 직접 광고를 만들고, 서울 시내의 갤러리를 대관해 광고를 전시합니다. 이외에도 워크숍, MT와 같은 재밌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기자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수한 : 애드라인에서 활동하며 저에게 중요하면서 소중한 순간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한 달 동안 준비해 발표했던 세미나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제가 동아리 회장을 할 당시에 35기 후배들에게 경쟁PT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경쟁PT 활동을 준비·계획했습니다. 혼자서 80슬라이드의 PPT를 준비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긴 PPT는 만들어본 적이 없었기도 하고, 특히 언젠가는 제가 직접 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활동이 매우 인상이 깊습니다.



기자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수한 : 회장을 했던 지난 학기 자체도 많이 힘들었지만 학기 중에서도 경쟁PT를 준비하는 기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진행한 경쟁PT 당시 저희 조의 경우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챌린지를 병행하며 PT 준비를 했습니다. 출품용 자료와 발표용 자료를 따로 만들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 일간 3~4시간씩만 자며 PPT에만 몰두해야 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록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매번 몰두하는 그 순간이 행복했기 때문에 힘이 들면서도 좋았던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한 : 동아리 동기와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수한 : 우선 이번 해 마지막 행사인 광고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2년 동안 함께했던 동기와 율해를 함께한 후배들에게 항상 고맙다는 이야기로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미세먼지, 그것이 알고 싶다

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찾아온 미세먼지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또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며 이를 총력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개념△발생원인△대기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이태형 우리학교 환경학과 교수에게 물었다.

이태형 우리학교 환경학과 교수

Q1.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우선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지름의 길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름이 10 μ m보다 작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로 구분되며 지름이 2.5 μ m보다 작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로 구분됩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달라 인체에 유해한 정도도 다릅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들어갈 경우 기관지 혹은 코에서 더 깊은 곳으로 침투할 수 없지만 초미세먼지는 폐로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에 유해한 작용을 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발생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자연 현상에서 나오는 반면 초미세먼지는 인위적인 요인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미세먼지는 황사, 바다에서 나오는 흙먼지 등이 주 발생지며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매연△산업 시설△오염물질 등이 주 발생지입니다.

※ μ m(마이크로미터): 미터의 백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길이단위

Q2.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은 계절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황사 기간인 3월과 4월에는 중국의 스모그가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편서풍 지대에 위치해 중국에서 스모그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로 미세먼지가 넘어옵니다. 이때 중국발 미세먼지는 많으면 전체 미세먼지의 60%~70%를, 적으면 20%~30%를 차지합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외 요인이 아주 적고 국내 요인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13일에 발생한 미세먼지의 경우 편서풍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세먼지의 요인은 국내 자동차 매연 또는 석유 화학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편서풍의 유무에 따라 국내 요인인지 국외 요인인지 나뉘집니다. 또한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더해지면 미세먼지의 고농도 사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세먼지의 요인은 △계절△시간△바람의 방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평균적으로 국외 요인은 30%~40%입니다. 미세먼지가 국내 요인인지 국외 요인인지 구분하기 전에 일단 국내 요인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야 국외 요인이 얼마큼인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최 대한 국내 요인을 감소시킨 후에야 국외 요인에 대한 계산이 가능해지며 비로소 인접 국가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해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미세먼지가 인체 및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에 쌓이면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이는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구체적 질환으로 △기관지염△폐기종△천식 등이 있으며 호흡기 질환자는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치료 약물(속효성 기관지 확장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으로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 폐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줘 협심증,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몸 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못해 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시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변 풍경을 모두 흐릿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서울의 풍경을 보기 위해 남산타워에 올라가도 풍경을 전혀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됐습니

다. ※가시도: 눈으로 특정한 물체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

Q4.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많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서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저감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에 회사는 이익을 위해 상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간 상품 가격은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매출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효율적인 해법이 아직 없습니다. 민간 차량 2부제 의무화 등 차량에 대한 규제 또한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며 정부는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Q5.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일상생활 속 행동은 미세먼지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에, 미세먼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가 대안이 되는 이유는 오염 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칠 자동차 또는 엘피지(LPG) 자동차 같은 경우 도로를 돌아다니며 방출하는 오염 물질을 한 곳에서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경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오염 물질만 관리하면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즉, 미세먼지 관리 측면에선 전기 자동차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는 일반 차량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 자동차를 선택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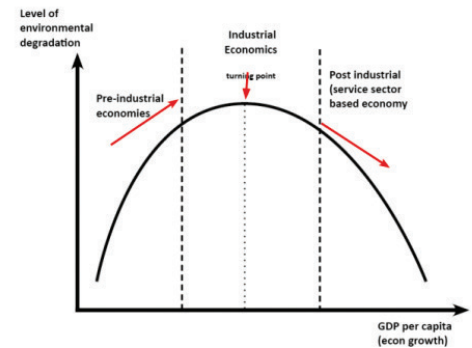
Q6.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민간차량 2부제 의무화, 저공해 경유차 혜택 폐지 등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에는 중국 영향이 크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대기 개선 노력이 시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내용’ 대책이라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환경오염과 국민 소득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쿠즈네츠 곡선에 따르면 국가는 일정 국민 소득을 달성한 이후엔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오염 물질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중국은 아직 오염 물질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국민 소득을 달성한다면 곧 오염 물질 감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 국내 요인을 감소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인접 국가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경유차 혜택 폐지는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저공해 경유차란 오염 물질 저감 장치를 단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계 관리에 대한 노력을 펼치지 않으면 기계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저공해 경유차의 저감 장치는 고장이 나면 다른 자동차의 몇백 배에 해당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장치의 고장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국 저공해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보다 몇백 배에 해당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한 채 정부가 주는 혜택을 받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저공해 경유차 혜택 폐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정책들의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반응 시간이 다른 오염에 대한 정책의 반응 시간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질

오염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 설치를 통해 결과를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세먼지는 한 곳에 모여져 있지도 않으며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수질 오염과 같이 오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다른 나라로부터 예상치 못한 미세먼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정책들이 그 효과를 내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 관련 정책들은 항상 난항을 겪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쿠즈네츠 곡선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 모집학과
[석사과정]
한국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인도 아세안학과, 중동 아프리카학과, 러시아 CIS학과, 유럽연합학과, 미국 캐나다학과, 중남미학과, 국제개발학과, 국제학과, 유엔평화학과
[박사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국제관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한국학과, 국제지역학과

- ◆ 특징
 - 국내 유일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
 - 신입생 입학장학금(전원 지급, 등록금 20~30%내외)
 - 학과별 추천장학금(학기별 선발, 등록금전액)
 - 본교출신 조교 장학금 제도(학기별 선발)
 - 성적 장학금(재학생 대다수 수혜)
 - 외부기관 장학금(POSCO, KIEP-GPAS 등 다수)
 - 3+1제도(재학중 1학기 외국대학 수학 후 학점인정)

* 석사과정 비논문트랙 운영(일부학과 제외)

◆ 원서접수

구 분	1차모집	2차모집
원서접수	10.1(월)~10.11(목)	11.12(월)~11.22(목)
면접일	10.27(토)	12.8(토)

◆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Website : <http://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우리학교의 언론인으로서

1년 전 입시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던 중 선생님께서 특 던진 “글쓰기 실력이 초 등학생 수준이야”라는 말이 내 마음에 큰 비수가 됐다. 그 이후로 나는 언론인을 꿈꾸게 됐다. 선생님의 말 한 마디에 각성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우리학교 학보 기자로 일하고 있다. 방중교육을 받고 개강호를 발행한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종강호 한 호만을 남겨뒀다. 언론인이 꿈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난 학기 이맘때쯤 에 시험공부도 미뤄두고 학보에 들어오기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했다. 어렵게 합격한 만큼 행복은 더 크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학 보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또한 내가 흥미 있는 것을 한다는 것만으로 매 순 간이 행복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내겐 어려운 과제였다. 학보 일 뿐만 아니라 단과대 학생회 일과 학점관리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 기엔 한 몸으론 부족했다.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다보면 이 또한 점점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최근에 그 힘들이가 정점을 찍었다. 얼마 전 학생회 할로윈 행사와 단과 대 학술제가 2주 연속으로 있었고 학보에선 인물 면을 맡게 뒀었다. 할로윈 행사 가 있었던 주는 인물 기사 마감주였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가서 행사를 진행하 느라 잠도 자지 못했고 마감 전날까지 인물 컨택이 되지 않아 이리저리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 다 끝까지 잡으 려고 노력했다. 결국 인물 기사는 서면 인터뷰로 대신하고 인물면을 마감했다. 그 주 일요일에 9시간 알바 후 미네르바 팀플까지 끝내고 나니 한 주가 마무리됐다. 사람이 잠을 못자면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그 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온통 예민했었기 때문에 체력 좋은 나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모든 일과 스 트레스가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또 다른 일이 주어졌다. 그것은 외대학보 1026 호의 제안서와 학술제였다. 학술제 때는 뛰어다니기 바빠 어딘가에 신경 쓸 겨를 이 없었다. 제안서에는 머리를 쓰며 나는 끊임없이 생각해야했다.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됐다.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됐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되돌아본다면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얻은 게 많아 뿌듯하고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 미화됐다. 학교생활 중에서 나에게 큰 시련을 주 면서도 소소한 행복을 주는 일도 학보인 듯하다. 학보는 나를 다양한 사람들과 만 나게 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 가장 크게 깨달 은 것은 언론이라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학 교의 언론을 보며 우리 사회의 언론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모든 언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비판적인 자세, 진정한 정론직필의 기사가 무엇이며, 우리 사회 의 언론은 과연 정론직필의 기사일까 한 번 더 고찰해 봤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느낀 것은 모든 일은 꿈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다. 내가 언론인이 되겠다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막상 실제로 겪다보면 단점이 하나, 둘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 고 싶진 않다.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또한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최선을 다해 내 꿈과 앞으로의 삶을 조각해나가고 싶다.

이은지 기자

위대한 개츠비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는 1920년도 미국을 배경으로 한다. 작품은 주인공인 개츠비가 아닌 제 삼자인 닉 캐러웨이의 관점에서 서술돼 객관적으 로 묘사된다. 소설은 닉 캐러웨이가 웨스트 에그(West-egg)로 이사 오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의 집은 개츠비의 옆집이었고 그 둘은 친구 가 된다. 이후 닉은 개츠비의 옛 연인이자 자신의 사촌인 데이지와 개 츠비가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어 그 둘은 다시 사랑에 빠진 다. 이미 톰과 결혼을 한 데이지는 호텔에서 개츠비와의 부적절한 관 계를 밝히려려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톰과 개츠비는 말다툼을 벌이 게 된다. 이후 호텔에서 돌아오는 길에 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 던 머틀은 데이지가 운전하던 차에 치어 죽는다. 톰은 상심한 머틀의 남편에게 개츠비가 그녀를 죽였다고 말한다. 얼마 후, 톰과 데이지는 여행을 떠나고 데이지의 연락을 기다리던 개츠비는 머틀의 남편에 의해 살해된다.

이 소설은 주인공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그들의 신분을 구분한다. 작중에는 '이스트 에그(East-egg)'와 '웨스트 에그(West-egg)'가 등장한다. 여기서 이스트 에그는 전통적인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며 웨스트 에그는 신흥부자들이 사는 동네로 묘사된다.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개츠비는 웨스트 에그에 거주 한다. '아메리칸 드림'은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 나 자수성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화로운 부자인 그의 시작은 지금 과 같지 않았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부자가 되기 를 갈망했다. 청년이 된 그는 폭풍우에서 백만장자를 구해주게 되고 그와 같이 항해를 하면서 신사의 행동을 익힌다. 이후 그는 술을 밀조

하고 밀매하는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게 된다. 부자가 된 그는 매일 화려한 파티를 열었는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데이지를 다 시 만나는 것이었다. 개츠비는 데이지를 얻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 쳤으며 그녀를 위해 살인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 녀는 그를 떠났고 그가 죽은 뒤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개츠비에게 데 이지는 꿈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남으로써 이 꿈은 좌절되고 만다. 이는 '아메리칸 드림' 또한 좌절됐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개츠비와는 반대로 태생부터 부유했던 톰과 데이지는 이스트 에그 거주자이다. 이들은 웨스트 에그에 사는 신흥 부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작중 톰도 개츠비에게 이런 태 도를 보인다. 그는 개츠비의 출신을 약점 삼아 공격해 크게 말싸움을 벌인다. 톰과 데이지는 물질주의를 상징하기도 하며 부도덕하고 이 기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데이지가 자신의 죄를 개츠비에게 전 가시키고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알 수 있다. 과거 개츠비의 연인이 었던 데이지는 개츠비가 전쟁터로 떠나자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각 종 사교 모임을 드나들며 여러 남자들과 어울렸고 결국엔 엄청난 부 를 가진 톰과 결혼한다.

이 소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어두운 내용을 다 루고 있다. 소설은 인간욕망의 좌절과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모 습을 잘 보여준다. 작가는 개츠비를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이면을 묘사하는데 같은 주제를 다룬 소설은 많지만 위대한 개츠비처럼 이 를 직접적으로 캐릭터에 비유한 책은 없을 듯하다.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아름다움은 눈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평소와 같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보던 중 한 광고가 재생됐다. 평소 광고를 접할 때처럼 다음 동영상으로 넘기려 했으나 영화와 같은 도입부와 아날로그 필름 색감에 끝까지 감 상하게 됐다.

〈두개의 빛 : 릴루미노〉는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저시력 장애 인들을 위한 VR 시각보조 앱 ‘릴루미노’를 알리기 위해 제작 된 영화이다. 이는 대중에게 ‘영화같은 광고’라고 찬사받았으 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 광고제서 혁신 부문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화의 주인공 ‘수영’과 ‘인수’는 사진동호회에서 서로를 만 나게 된다. 수영은 일곱 살 때부터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인 수’는 이제 막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초보’이다. 동호회를 함께 하게 된 이 둘은 함께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감정이 깊어져 간다. 밝고 당찬 수영덕분에 수영과 인수는 데 이트를 하게 되지만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잠시 멀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동호회 사진전에서 수영의 사진을 보게 된 인수 는 수영의 따뜻한 마음을 깨닫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아무래도 30분정도의 단편영화이기 때문에 줄거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 다. 바로 ‘편견 깨기’이다. 보통 생각하기를 장애인이라 하면 동정을 가지고 도와줘야하며 어떤 이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에선 그러한 시각을 비판한다.

수영과 인수의 첫 만남에서 인수는 수영이 계단 오르는 것을 도와주려 하자 손사래를 친다. 그 이유는 바로 수영이 시각 장

애인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인수와 만나려 가던 수 영은 계단에서 넘어질 뻔 한다.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도와 주려하자 수영 또한 그 도움을 거절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 람들의 동정어린 시선과 도움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간접적 으로 표현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은 조금 불편한 부분을 갖고 있을 뿐 동정하거나 기피할 대상이 아니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 임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아름다움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사진 동호회 회원들은 눈이 아 닌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헤아린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자연의 아름다움과 서로의 모습을 카메라에 남겨 추억을 되새긴다. 영 화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은 동호회 회원들이 바다에 가 사 진을 찍는 장면이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아 들이 찍어주는 아들의 모습에 감동해 남몰래 눈물을 흘치기도 한다. 시각 장애인 부부는 서로사진을 찍어주며 따뜻하게 미소 짓기도 한다.

〈두개의 빛 : 릴루미노〉는 광고의 의미를 초월해 사회에 보편 적 인식을 깨고, 시각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대중들이 이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작은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영화가 제작되길 희망해본 다.

윤아영 기자 97yuna0@hufs.ac.kr

학교학교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모두에 필요한 덕목; 신뢰

이지은(아시아·태국어 17)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25호는 △외대사랑 순찰대△국제교류 프로그램 △폭주 문제들 다뤘다. 먼저 기획으로 다룬 서울캠퍼 스이하서울캠과 글로벌캠퍼스의 순찰대에 관한 기사 에 따르면 재학생들로 구성된 순찰대는 하루 야간 4시 간, 3인조로 교내 순찰을 시행한다. 그러나 교내 학생들 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 순찰대의 운영은 목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있다. 봉사 장학금을 받는 활동인 만큼 재학 생들의 순찰대 지원 목표가 완전히 교내의 안전을 위한 화생과 봉사임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는 곧 학생 순 찰대가 교내의 안전 사고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지 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서울캠의 경우, 캠퍼스뿐 만 아니라 건물 내의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워 더욱 경계 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모 여대의 교내 성범죄사건 등의 분노범죄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불시 에 일어남을 반영해 학교 측의 안전대응대책이 필요함 을 이야기한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지원을 하락에 대해서는 2016 년과 지난해, 두 해의 비교만으로 학생들의 교환 프로그 램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점

을 꼽았다. 더불어 그 감소의 폭이 교환학생의 경우 총 지원자의 약 4퍼센트, 7+1파견학생은 약 3퍼센트로 작 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 프로그램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 음을 주장하기 어렵다. 또한, 그 이유가 취업을 위한 인 탄심 선호임을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그 외에도 다른 경 제적 이유 또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가 불충분하 다고 판단됐다.

심층보도에서 다룬 경제학과의 폭보사건은 독자 또 한 경제학을 이중전공으로 이수함으로써 꽤나 관심 있 게 들은 적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임압리에 이뤄지던 이야기들을 수면 위로 꺼내고 교수 들의 인터뷰를 직접 취재한 것은 학보의 역할이 잘 이뤄 졌다고 생각한다. 모든 학문의 특성상 중요한 내용은 사 실상 정해져 있다. 그러나 폭보가 시험의 형평성에 문제 가 된다는 이유는 시험의 유형이나 세세한 정보가 바뀌 지 않고 그대로 나온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사이의 폭보 교환을 전부 차단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고 교수들의 매해 시험문제 유형 변화가 성적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성과 낭만을 쌓는 학교생활이 됐으면

표승수(경상·국제금융 14)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이번 1025호는 우리학교 순찰대의 끝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집 중 조명한다. 윤아영 기사는 우리학교 순찰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그들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순찰대의 존재에 대해선 알 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했고 또 이로 인해 그들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했 다. 윤아영 기사는 이번 기획을 통해 순찰대에 대한 학생들의 잘 못된 시선과 오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김조영 기사는 우리학교의 자랑인 국제교류프로그램의 지원 을 하락 원인을 파헤친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취업난으로 인한 인턴십의 인기도 한 몫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높은 비용 과 지원 자격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이유 등 프로그램 내부적인 원인들도 우세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가 대외적으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만큼 학 교가 학생들의 입장과 학교 시스템의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김조영 기사의 지적이 더욱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안효빈 기사는 지난해 중간고사 코앞인 서울캠퍼스이하서 울캠) 내에서 동대문구가 주관한 가을 음악회의 시기 타당성에 대해서 파헤친다. 이 논란은 스마트 도서관 공식으로 인한 열 람실 좌석 부족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이 누적이 돼 터져 나 왔다. 안효빈 기사는 열람실 좌석 문제와 더불어 시기 부적절한 음악회 개최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의 입장을 잘 대

변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학교 측의 입장이었는데 왜 개최 시 기를 중간고사 이틀 전으로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지난번부터 제기돼 왔던 입시 열람실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학생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학 교 측의 조치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거나 학교가 준공식까 지 손놓고 기다리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안 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안소현 기사는 심층보도로 폭주문제의 공정성에 대해서 조명 했다. 폭주를 구하는 학생은 적은 노력 대비 높은 성적은 쉽게 받을 수 있고 폭주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노력 대비 폭주를 구한 학생에 비해 성적을 받기가 어렵다. 이번 서울캠의 경제발전론 중간고사 시험은 폭주 문제로 인해 무효화됐다. 안소현 기사는 폭주 문제에 대해 최대한 중립성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마지막 에 여러 교수님들의 인터뷰를 첨부하면서 그 방향성을 조심스 럽게 제시했다.

중간고사 이후로 여러 논란들이 발생했던 것 같다. 폭주 문제 기사 말미에 한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지성과 낭만,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수들과 학생들이 서로 노력해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의 가슴을 두 드린다. 우린 지금 우리 스스로를 각박한 세상 속에 살게 내버려 두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됐다.



스스로를 사랑하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는 지난 9월 그룹 방탄소년단이 청년 세대를 대표해 오른 유엔 총회 무대에서 전한 연설의 일부이다. 유엔 총회에 초청된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사회 변화 캠페인 ‘러브 마이셀프 (Love Myself)’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14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이 교육감)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20대의 삶을 시작할 때 흔들리며 피었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길 바란다” 이어 “여러분 자신은 이미 희망이자 새 길이다”며 “방탄소년단이 세상에 전한 호소처럼 저 역시 여러분에게 ‘러브 마이셀프’라고 말 하겠다”라고 자신을 사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5일에 진행된 이번 수능 필적 확인문구 또한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 본 일이 없다’였다. 이처럼 사회는 개인의 ‘자기애’ 키우기에 노력을 가하는 중이다. 현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애를 나르시시즘(Narcissism)과 연계해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를 낮 간지러운 것으로 치부하곤 한다.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은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서 주는 것 이상의 사랑을 받아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타인이 자신을 사랑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줄 타인은 존재할 수 없다. 다수의 사람들은 타인을 충분히 사랑해 줄 여유가 없고 그런 타인에게서 사랑을 채우려는 생각은 사랑의 결핍을 불러올 뿐이다. 사랑의 결핍은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 감을 높일 뿐이다. 최근 <자기 몸 긍정주의(body positivity)>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했다. 자기 몸 긍정주의란 남에게 보이는 외모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우선시하며, 개인이 가진 외형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과거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본연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자는 것이 이 개념의 핵심이다.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유일하며 역사 속에도 하나일 뿐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아껴줄 존재 또한 ‘나’인 것이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채찍질만을 하기 보단 부족함을 쓰다듬고 스스로에게 애정 어린 위로를 보낼 것을 권해본다.

홍주연 부장 95m52535@hufs.ac.kr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의 임무

지난 14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주변에 수험생을 둔 학부형들이 있었다. 나도 4년 전엔 아들이 수험생이었고, 7년 전엔 딸이 수험생이었다. 같은 일을 겪었으니 그 심정을 잘 이해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어른이 되는 통과례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저녁 뉴스에 보도된 장면 가운데, 이런 것도 있었다. 어떤 수험생이 수험장에 늦어 112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대한민국 경찰이 경찰 오토바이와 112순찰차가 비상 경광등을 켜고 달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동차를 비켜주면서 무사히 시간 안에 수험장에 도착하는 장면 등. 대한민국의 한 시인이 1993년 가을 북한산성 백운대 아래의 상운사(祥雲寺)에서 만난 유니세프 대사 부부로부터 시를 한 수 받았다고 한다. 시인은 부인에게 서산대사의 선시를 알려줬고, 부인은 화답으로 당신이 쓴 시를 줬다는 것이다. 시인은 그 시를 이번 해 공개했다. “To my daughter, I didn’t give life. Life gave her to me.”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번역했다. “나의 딸에게 나는 생명을 주지 않았다. 생명이 그녀를 내게 줬다.”(폴렛 스페샤 몬티베어, 1934-, 프랑스 시인) 이 시는 선시(禪詩)와 같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울림이 있는 시다. 모든 자녀는 귀하다. 귀하지 않은 자녀는 없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귀한가? 그들이 우리의 아들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 모두는 생명이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다. 모든 자녀는 그들 부모님께 생명이 준 귀한 선물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생명을 느끼고 생명을 붙여넣는 시험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시험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사회가 우리 학생들이 대학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대학은 무엇인가? “대학지도(大學之道), 재명명덕(在明明德), 재친민(在親民), 재지어지선(在止於至善).” ‘대학’은 ‘큰 배움’이다. 큰 배움의 길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밝은 덕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지극한 착함에 머무르는 것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훌륭하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자신 안의 밝은 덕을 가리고 밝히는 것,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착하게 살라고 하는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다시 대학(大學)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토론하는 곳이고, 인간과 지구의 미래 그리고 우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지성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한다. 김원명 (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교수)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은 언제나 새어나가니 늘 말조심하라는 뜻’이다. 외대학보 편집장 직책을 맡으며 머릿속에 새긴 말이다. 어떤 단체의 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행한 말·행동 하나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살자고 다짐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니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내 삶 속에 녹아내렸다. 지위와 권력을 갖게 되면 그만큼 책임이 늘어난다고 배웠다. 또한 서슴없이 밝은 말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많다. 사회전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전반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번 외대학보 사회문화면 ‘그루밍 성폭력’ 기사를 생각해보면 된다. 기사는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내용이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두터운 선망이 필요한 직업군에서 역설적으로 성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우리학교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영어대 학생회장 탄핵소추안 발의’가 큰 이슈다. 한 단과대의 ‘대표’라면 그 누구보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지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서슴없이 욕설을 하는 모습과 성추행을 행하는 모습이 대자보와 SNS등을 통해 알려졌다. 영대장은 이러한 추악한 행동들이 밝혀지면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말과 행동엔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결국 말은 돌고 돌기 때문이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신뢰를 쌓는 건 오랜 시간 이 걸리지만 무너져 내리는 건 한 순간이다.

정동민 편집장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정동민 010-2267-2192 95won01000@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정동민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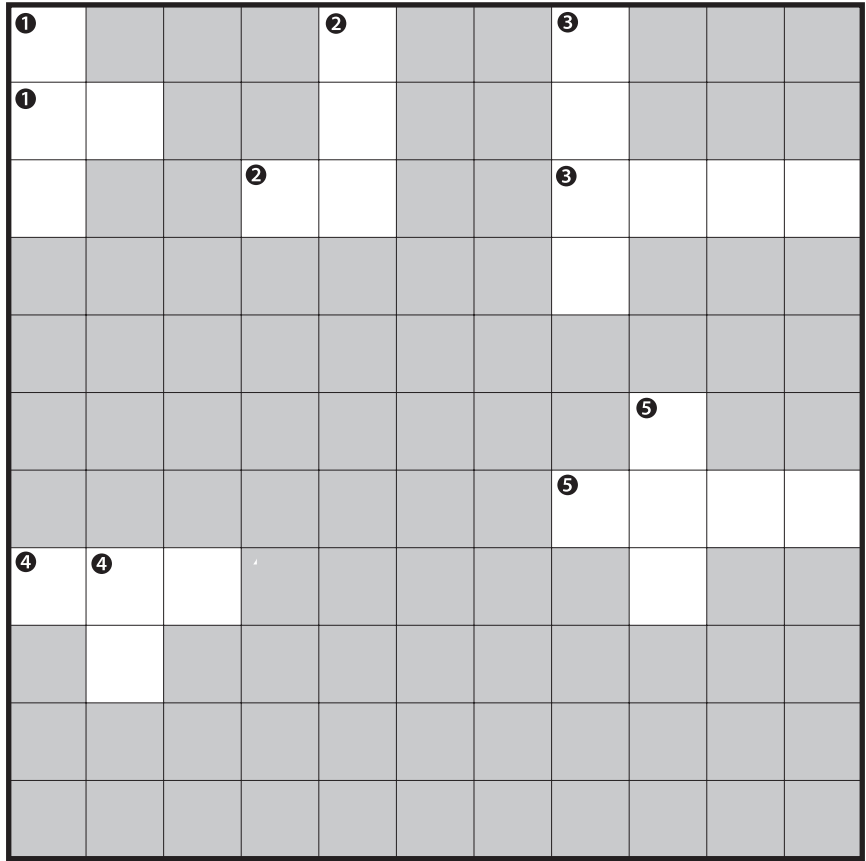
미래의 언론인, 98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나는 백만의 중견보다, 석장의 실용자를 더 두려워한다”
-나폴레옹-

- 모집대상 양 캠퍼스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학생 누구나
- 지원마감 1차 마감 11월 28일 수요일 자정
- 필기시험/면접일 서류 심사 후 개별 연락
- 합격자 공지 필기시험/면접 후 개별 연락
- 활동 혜택 언론 장학금 혜택
취재 활동비 및 취재 수당 지급
사회 각계의 선배들과의 만남

▶지원서 수령 및 문의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정동민 편집장 010-2267-2192

십자말풀이



- 가로**
1.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글로벌캠퍼스의 ○○에 관해 불만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7면 참조)
 2. 최근 일부 ○○집단을 중심으로 그루밍 성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8면 참조)
 3. 최근 우리학교 ○○○○ 서버 막힘 현상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2면 참조)
 4. 불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찾아온 미세먼지에 많은 ○○들은 당황과 동시에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9면 참조)
 5. 지난 8월 정부는 ○○○○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하여 ○○○○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9면 참조)
- 세로**
1. 이번 호 인물면에서는 우리학교 ○○○를 졸업하고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김준현 씨를 다뤘다. (12면 참조)
 2. 지난 2년간 입후보자가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동아리 ○○○에 새로운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했다. (3면 참조)
 3. 이번 호 심층보도에서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임기가 끝나가는 중 총학생회의 ○○○○ 현황을 알아봤다. (4면 참조)
 4. 최근 정부는 특수○○○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한 바 있다. (5면 참조)
 5. 이번 ○○○○ 시험에 우리학교에서 5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1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천상 개그맨 김준현을 만나다

우리학교에서 가장 '맛있게 먹는 녀석'은 누구일까? 바로 김준현(인문·철학 99) 선배님이다. 김준현 선배님은 2007년에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개그콘서트를 시작으로 △맛있는 녀석들△SNL 코리아△맛있는 이야기 음담패설 등 쟁쟁한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쌓았다. 재치 있는 유머와 복스럽게 먹는 그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호감을 끌기 충분했다. 인문대 최고의 마당발 김준현 선배님의 학창시절 속으로 들어가 보자.

Q1.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었는지 한 단어로 정의해주세요.

제 자신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한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입학했을 땐 한 달에 한 번씩 엠티도 가고 매일 과방에서 과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것도 먹고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렀어요. 군대를 제대한 후 2학년이 됐을 땐 기숙사와 자취방에서 살며 항상 학교에 있었어요. 2004년엔 철학과 과회장으로 활동했어요. 당시엔 학교와 광화문에서 데모를 자주 했어요. 그때 학교에선 등록금 투쟁 중이었고, 광화문에선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반미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8·15투쟁도 했었죠. 또 제가 전공한 철학에 재미를 붙여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해 인문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단대 학생들과도 살갑게 지냈어요. 특히 봄에 날씨가 좋을 때면 명수당에 가서 막걸리를 마시곤 했어요. 요즘엔 명수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금지됐다고 들었는데 후배들이 그 재미를 못 느낀다고 생각하니 참 아쉬워요.

Q2. 인문경상대 밴드 '어쩌다 마주친'을 창설하셨다고 들었는데 창설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입생일 때 자연과학대 밴드 NFM(Natural sound of music)에서 활동했어요. 저는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데 밴드에선 팝송만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를 락으로 리메이크해 공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준비하며 2003년에 친구들과 대학가요제에 나갔는데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그 계기로 밴드를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이 생겨 인문경상대 밴드 '어쩌다 마주친'을 만들게 됐어요. 당시 방음과 시설을 구비할 돈이 없어 비닐하우스용 유리솜을 헐값에 사 일일이 손으로 붙이며 작업했어요. 전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유지될 줄은 몰랐어요. 팬스레 뿌듯하네요.

Q3. 김준현이 생각하는 CC(Campus Couple)란?

20대에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에 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사실 제가 CC를 많이 해보긴 했어요. CC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즐거워요. 함께 수업을 듣고, 시험공부도 하고... 글로벌캠퍼스는 데이트하기도 좋아요. 명수당에 앉아 오순도순 얘기할 수도 있고 망각의 숲을 손잡고 거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별은 잘 감당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깔끔하게 헤어져야 하죠. 그렇다고 헤어질 것이 두려워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지나고 보면 다 추억이거든요.

Q4. 학창시절 자주 다닌 음식점은 어디인



가요?

사실 안 기본 음식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성수 식당'을 제일 많이 다녔어요. 학교에서 시켜 먹기도 하고, 개강파티나 종강파티 등 뒤풀이도 많이 했죠. 학생에게 조금 비싼 가격이라 월 초에 용돈이 두둑할 때 꼭 갔어요. 가장 추천하는 메뉴는 갈비탕과 순댓국이에요. 성수식당은 졸업 후에도 찾아갈 정도로 사장님과도 굉장히 친했어요. 또 '다래원'이라고 중국집이 있어요. 복학생 선배들이 학교에 올 때마다 그곳에서 탕수육을 사줬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에 학교에 가보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특히 편의점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당시엔 편의점이 없었어요. 작은 가게들만 있었는데 그마저도 오후 11시, 12시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만약 간식이 먹고 싶으면 모면 사거리까지 걸어 내려가야 했어요. 걸어서 왕복 1시간이 걸렸죠. 간식을 사서 올라가다 힘이 들면 '정심대도' 동상 앞에 앉아서 다 먹어버리기도 했어요(웃음).

Q5.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개그맨으로 진로를 정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했어요. 철학이라는 전공 자체가 정해진 길이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보니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다방면으로 대입해볼 수 있었어요.

학창 시절 활발하게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2003년 말에 사생장이 기숙사 축제 '청량제'의 진행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엔 못 하겠다고 거절했는데 막걸리를 사주겠다고 하는 말에 혹해 마이크를 잡게 됐죠.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 보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멘트에 사람들이 웃는 것에

희열을 느꼈어요. 그 당시 축제 시설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들이 말하길 "제가 가봤던 대학교 행사사회자 중에서 가장 재밌었어요"라고 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용기를 얻어 개그맨이 되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 아무도 모르게 개그맨 시험을 응시했어요. 그저 대본을 보고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것을 연기했어요. 당연히 보기 좋게 떨어졌죠. 멋모르고 시작하다가 호되게 당한 거예요(웃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로의 개그맨들이 모여 있는 기획사 겸 극단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일 년 반 정도 연기도 배우고 공연도 하며 개그맨이 됐어요. 그때 연봉이 1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돈으로 자취방을 구해 생활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을 법도 한데 매일 공연을 하고 대중앞에서 일이 즐거웠어요. 무엇보다가 해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

아요. 개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는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Q7.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뚜렷하게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방송이란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곳이에요.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아야 하고 시대적 코드도 맞아야 하죠. 더 나아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예요. 또 멀리 봤을 때 정말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사실 코미디 영화를 코미디언이 직접 작품을 쓰고 촬영하진 않거든요. 코미디를 좋아하고 웃음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해 언젠가 코미디 영화를 만들어내는 인프라를 쌓는 것이 제 목표예요.

Q8.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요즘엔 어떤 것을 준비해도 힘들잖아요. 대부분 비슷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진부하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힘들어질 때도 있겠죠. 잔인한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힘들 때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해야 해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무대에서 재미가 없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반대로 동료 개그맨이 같은 내용으로 무대를 했을 때 웃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자신을 채찍질하고 연습했어요. 전 남들이 나오기 몇 시간 전에 극장에 나와 발성 및 발음 연습을 했어요. 적절한 예시 일진 모르지만 3, 4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핸드폰을 달라고 조르면 핸드폰을 줘야만 아이들의 욕구가 해소돼요. 아무리 책이나 장난감을 가져다줘도 아이의 머릿속에는 핸드폰밖에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완성돼야 욕구가 해소되거든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힘들 땐 깊게 파고들려 노력하고 스스로를 혹독하게 단련시키는 것이 결과

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궁극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집념을 갖고 끝까지 해보길 바라요. 순탄하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거든요. 긍정과 끈기를 갖고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철학적인가요?(웃음).



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즐거움만 가득했어요.

Q6. 인생에서 '개그'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이란 자고로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는 일이 잘되고 리듬이 생겨요. 제게 있어 본능은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일을 평생 해야 할 것 같